

수술 급감·응급실 뱅뱅이...“아프면 안돼” 지역민 아우성

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2〉 의정 갈등 지속에 해결방안 마련

“아프면 안돼! 아프면 환자만 손해야”
광주·전남 상급병원의 병상축소, 수술 차질, ‘응급실 뱅뱅이’ 사태가 빚어지는 등 조류의 의료 사태가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부터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는 가중되고 있고 병원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아직 묘연하다.
광주·전남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 각 225명과 107명이 의정갈등으로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 모두 일괄 처리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여부와 관계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아직까지 이들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두 병원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 등 때문에 수술실을 줄이고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인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진료와 수술 건수 등이 크게 줄면서 입원환자가 급감해 전남대 병원은 3개 병동, 조선대병원은 4개 병동을 폐쇄해 다른 병동과 통합했다. 일부 비어있는 진료과 병실을 폐쇄해 의료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3월에는 양 대학의 의대교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 처럼 보였지만, 정부가 강력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나서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문의(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간호사들도 진료보

의정 1년 내내 ‘강대강’ 대치 계속
전남대·조선대병원 332명 사직
병상 줄고 수술 지연에 환자 한숨
병원들 막대한 경영 손실 쌓여가
휴학 의대생들 내년 복귀 미지수
탄핵정국 속 해법찾기 논의도 중단

조(PA)간호사로 배치되면서 기존 업무에 전공의들의 일부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불법의료 행위 등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급병원은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실을 가동하고 입원·외래 환자를 대폭 줄이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는 더 심해졌다.
수술건수는 의정갈등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응급실 운영은 평소보다 60%나 줄어든 것이다. 입원환자 병상도 전체 병상의 50%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면허 정지를 내걸고 강경대응 했지만 전공의들의 발걸음 되돌리지는 못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자 병원들은 외래진료 휴진을 검토하기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중증 신생아를 돌보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고위험군 임신부들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송돼 분만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만 전담하는 일반의를 모집했지만 응시자는 없었다.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전남대병원 2명, 조선대병원 0명만이 지원했다.
병원들은 막대한 경영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적자가 1000억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이후 매달 150억원에 달하는 수익감소가 발생해 11월 현재 1500억대의 수익감소가 발생했다.
정부가 전년도 전남대병원과 지급된 건강보험금 대비의 30%를 선지급을 하고 있어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내년 초 추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 전남대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대학의 의대생도 지난 3월초 새학기부터 휴학계를 제출하는 이른바 ‘동맹 휴학’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재학생이 휴학했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비했다.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은 내년 3월 복학할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지만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대폭 늘어난 인원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휴학생들이 내년에 복학할지 휴학을 또다시 연장할 수도 미지수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의정갈등 논의가 중단됐지만, 여야는 향후 의대정원 증원여부를 놓고 법 개정안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2026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월, 50대, 금요일 밤...음주 교통사고 빈발

광주·전남 최근 5년 분석

광주·전남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10월과 12월에 빈발했고, 사고 연령대는 50대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사고 시간대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0시까지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이용해 최근 5년(2019~2023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광주에서는 5년 동안 2521건(사망 29명, 부상 4359명), 전남에서는 3486건(사망 90명, 부상 5430명)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8만 3524건)의 7.2%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총 6007건의 음주 사고 중 12월은 528건(8.8%)으로 10월(544건·9.1%)에 이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새벽 0시에 많았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금요일 밤 10시~새벽 0시에 222건(3.6%)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목요일 밤 10시~새벽 0시(187건, 3.1%), 토요일 새벽 0~2시(177건, 2.9%), 토요일 밤 10시~새벽 0시(172건, 2.8%) 순으로 사고가 자주 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50~59세)가 1385건(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54건(20.9%), 20대 1208건(20.1%), 30대 1102건(18.3%) 순이었다.
음주운전자 특성상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앞 차와 충돌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추돌 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음주 사고 중 차대차 교통사고는 4787건이며, 이 중 ‘추돌 사고’는 1975건으로 41.2%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전체 차대차 교통사고(6만 5555건) 중 추돌 사고(1만 2383)의 비율이 18.9%에 불과한 데 비해 음주 사고에서는 두 배 이상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고령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모임을 갖는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사회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파손된 '평화의 소녀상' 복구

지난 달 30일 만취한 행인에 의해 파손된 광주시 북구청 앞 광장의 평화의 소녀상이 보수 작업을 마치고 23일 재설치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남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건설업자 B씨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벌린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보완 수사를 통해 재차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환경부 기후대응담 건설’ 등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발표했다.
단체는 ‘평두메 습지 탐사서 습지 등록’, ‘여자만 여수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2개를 좋은 소식으로 10대 뉴스에 포함시켰다.
8개 뉴스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환경부 기후대응담 건설 계획 발표’를 비롯해 ‘광주·전남 온

열질환자 400명 넘어’, ‘국립공원 1호 지리산 권역 지속적인 개발행위 진행’,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과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난항’, ‘호남지역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중단’,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년 연속 불명예 1위 기록’ 등이 선정됐다. 단체는 이들 8개 뉴스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뉴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5년 12

월, 2026년 9월 종료되는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10년)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수명연장은 후손들에게 전해줄 미래와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한빛 1·2호기의 폐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담 건설 계획에 화산, 순천, 강진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들은 담의 위치, 필요성, 타당성, 주민 수용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담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손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